

외국기업 CEO들이 말하는 경영 애로

“외국 우수인력 비자발급 빨리”

김진환 기자

“과격한 노사분규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도록 노력해 달라.”

“모조품이 지나치게 범람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외국의 우수한 컨설턴트나 사무직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

주한 외국 기업 CEO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외국기업협회가 매일경제신문·매일경제TV 후원으로 파인크리크CC에서 개최한 ‘제1회 외국인 투자기업 CEO 토크대회’를 마친 뒤 이회법 산업자원부 차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이렇게 집약된다.

먼저 노사분규와 관련해 CEO들은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격성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미 들어온 기업들에 질수할 발미를 제공할까 걱정”이라며 염려를 표시했다.

이 차관은 이에 “외국 기업에서도 분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약성 분규가 없어 다행”이라며 “외국인 투자 밀집지역에 노사조정관을 투입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유명상품 모조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의 단속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 CEO들은 걱정하고 있었다.

이 차관은 “꾸준한 단속이 되지 않아 문제”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지적재산권이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주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CEO 간담회에서 이회법 산자부 차관(가운데)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영석 협회장, 왼쪽은 장병석 소니코리아 회장. <김진환 기자>

주한 외국기업 CEO 건의사항

- 모조품의 확실한 단속
- 과격한 노사분규 종식
- 우수인력 비자 신속 발급
- 관련한 생활환경 조성
- 불평등한 거래관행 개선

는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 우수인력이 쉽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나 박사급 기술자에 대해서는 ‘골드카드’ 제를 실시해 바로 비자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컨설턴트, 관리직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이 많다는 게 외국 기업 CEO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사정은 잘 모른다 못했다. 이 차관은 “현재 규제안

화를 위한 건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단순히 투자나 공장증설 등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주거문제 등 외국인 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영석 한국외국기업협회장 회장(TI코리아 사장), 장병석 수석부회장(소니코리아 회장)을 비롯해 이승일 아루코리아 사장, 최동건 한국엔지니어링프라스틱 사장, 김진천 벤처피플 사장, 이억기 파이얼 사장, 심재수 FKM 사장, 김규동 DBM 대표, 백만기 변리사(김&장법률사무소), 전희인 교세라점공 사장, 배종만 윌슨코리아 대표, 박찬덕 AIG보험 상무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